

# 3대 가축전염병 동시 다발...축산물 물가 '비상'

### 동절기 산란계 1000만마리 살처분...계란값 20%↑ 돼지고기·한우까지 올라...수급 차질에 가격 압박 농식품부, 방역 강화·계란 수입 등 긴급 대책 마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 등 3대 가축전염병이 동시다발로 확산하며 방역체제와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가축전염병의 영향으로 닭고기·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물가가 1년 전보다 6% 이상 오르며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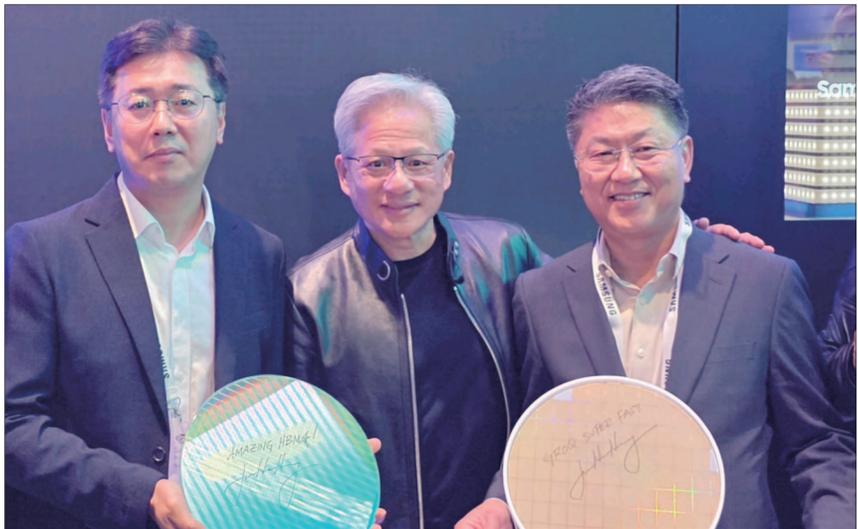
세 질병 모두 전파속도가 빠르고 피해가 큰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어 특별방역 대책 기간도 이달까지 한 달 연장됐다. 이처럼 3대 가축전염병이 동시에 유행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이다.

약 네 배 수준에 이른다. 생산량 감소는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번달 계란 특란 30개 평균 가격은 6803원으로 전년 동월(6393원) 대비 6.4% 상승했다. 같은 기간 특란 10개 평균 가격은 3896원으로 21.3% 올랐다. 2월 계란 소비자물가지수도 141.55(2020=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6.7% 상승했다.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ASF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도축 물량이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돼지 도축 마릿수는 조업 일수 감소까지 겹치면서 전년보다 15% 이상 줄었다.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상반기 돼지 도매 가격이 kg당 5500~5700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3.3%, 평년보다 12.8%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저조급과 정부 할인 지원을 활용해 돼지고기와 계란 할인 행사를 지속 추진 중이다. 미국산 신선란 1차 수입분 112만개는 메가마트에 이어 이날부터 홈플러스에서도 30구 기준 579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 평균 가격의 약 82% 수준이다. 또한 2~4차 추가 수입 물량 359만개도 이달 말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농정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방역과 공급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 철새 북상 시기를 고려해 산란계 농장의 출하·입식 제한과 전국 일제 소독 주간 운영 등 방역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해서도 전국 돼지 농장 검사와 도축장 방역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19일까지(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에서 열리는 엔비디아 GTC에서 7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4E를 최초로 선보인다. 사진은 엔비디아 전스 황 CEO가 GTC 2026 현장에서 삼성전자 부스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삼성전자, 엔비디아와 '토털 솔루션' 협력 GTC서 HBM4E 최초 공개...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GTC 2026'에서 7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HBM4E'를 공개하고 엔비디아 차세대 인공지능(AI) 가속기 '베라 루빈(Vera Rubin)'을 지원하는 메모리 솔루션을 선보인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GTC 2026'에서 7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4E를 최초로 선보인다. 메모리·로직 설계·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칩단 패키징을 아우르는 종합반도체 기업(IDM)의 면모를 앞세워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전시 공간을 AI 팩토리, 온디바이스 AI, 퍼지컬 AI 세 개의 존으로 구성해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GDDR7, LPDDR6, PM9E1 등 차세대 삼성 메모리 아키텍처를 소개한다.

## 광주경총, 지역 가전산업 '고용붕괴' 끊는다

### 대우위니아 사태 이후 인력 이탈·채용난 심화 임금·멘토링·적용지원 '3단 패키지' 본격 가동

광주지역에서 인력난과 조기퇴사가 맞물리며 생산현장의 공백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채용부터 장기근속까지 전 주기를 묶는 고용 안정 정책이 본격 가동된다. 대우위니아 사태 이후 지역 가전·부리산업 현장에서 채용 자체보다 인력의 '정착'이 더 큰 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이번 고용 안정 지원사업이 반복되는 조기퇴사와 숙련 인력 단절 구조를 끊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방점을 찍은 것이 눈길을 끈다. 현재 지역 가전 및 전·후방 산업은 최근 수요 위축과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채용 절벽과 숙련 인력 이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신규 입사자의 조기 퇴사가 반복되면서 기업은 채용 비용 부담을, 현장은 기술 단절 리스크를 안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의 기술 단절을 막기 위한 '현장 이음 상상 지원'도 병행된다. 숙련된 재직자와 신규 입사자를 1대1로 연결해 직무 교육을 지원하고, 입사자가 6개월 연속 근무 경우 담당 재직자에게 60만원의 성공 장려금을 지급해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와 적응을 유도한다.

## 전남글로벌게임센터, 지역 게임산업 육성 '스타게임 다년도 제작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전남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스타게임 다년도 제작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역 있는 게임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게임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적인 게임 콘텐츠 제작을 다년도에 걸쳐 지원하며 전남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 게임 개발이 가능한 게임 제작·배급 기업이다. 전남 소재 분사 기업을 비롯해 선정 후 전남으로 분사 이전이 가능한 타 지역 게임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 제10회 나누사랑 나누 나누어주기 행사

##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기념 시·도민 제22회 영산강 사랑 한마음 걷기대회

2026. 3. 28. (토) 09:00~13:00

다양한 경품지급  
참가자 영문권 추첨

'영산강 환경정화 캠페인' 참가학생에게  
→ 자원봉사(1365) 2시간 인정

행사장소: 빛가람 호수공원 (전남 나주시 호수로 77)  
참가대상: 남녀노소 누구나(참가비 없음)  
참수기간: 2026년 2월 20일(금) ~ 3월 25일(수)  
참수방법: 광남일보 홈페이지 배너 및 팝업창 (www.gwangnam.co.kr)  
문의: 광남일보 사문국 T. (062)370-7090  
※ 후원시에도 진행합니다.  
※ 취·입장은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주관: 광남일보, 드림투데이, (사)광남문화재단, 건국대학교  
후원(예정): 나주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남대학교, 광양시, 영암시, 영광군, 함평군, 순천시, 담양군, 무안군, 고창군, 완주군, 임천면, 영광군, 함평군, 순천시, 담양군, 무안군, 고창군, 완주군, 임천면